

“ 정의란 무엇인가? ”

■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신을 여호와 의 종으로 말씀하면서 그가 이방에 경의를 가져올 것을 선포하셨다. 많은 이들이 예수는 은혜와 용서를 가져온 분으로만 알고 있으나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경의를 찾고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언자 아모스도 오직 경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그가 위대한 글을 썼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만큼 정의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경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으나 경의를 실천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정의 실천을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정의 실천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오직 경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선지자 미가는 선포했다.

정의와 인자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인자는 하나님의 조건없는 은혜와 동정을 말한다면 정의는 그것을 행동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의 행동 배후에는 인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경의를 행해야 한다. 구약에 200번 이상 나오는 정의라는 말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이다.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면을 하거나 형벌을 줄 때 종족,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벌과 사면이 시행되어야 한다. 정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형벌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정의는 벌을 받거나 보호를 받거나 돌봄을 받든지 그 권리를 백성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특히 오늘날엔 탈북난민,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결손가정의 자녀들, 장애인, 힘없는 노약자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 정의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방어자)이시라(시 68:4-5) 하나님은 자신을 힘없는 자와 동일시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들으신다. 고대사회에서는 이 같은 정의를 불명예스런 수치스러운 정의라 비웃었다. 고대 사회의 신들은 그 사회의 엘리트 즉 왕 제사장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힘없는 자의 편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조롱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도와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욥 29:12-17) 하셨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뿐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바로고 관용과 공평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너그럽게 주는 것은 자비요 동정 또는 구제지 정의는 아니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구제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선택적 활동일 뿐이다.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너그럽게 남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가르치고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다. 너그럽게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불의라는 것이다. 나만 혼자 내 떡 덩어리를 먹었고 고아와 과부를 못 본 체했고 가난한 자가 덮을 것 없을 때 못 본 체했던가. 욥은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삶은 정직 공평 그리고 관용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삶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라면 특히 아담 이후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이라면 하나님의 정의를 너그럽게 실천해야 한다. 자력 구원 능력없는 당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반항 해야 한다. 이 정의는 의를 옷으로 입듯이 겉옷과 모자같이 항상 내 몸에 함께 있어야 한다. 정의 실현의 기회를 멀리서 찾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찾아 도와야 한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여 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사 1:17) 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자.

-한국장로신문 2013년 4월 13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예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교회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학교는 이번 주에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매년 연초 실시하던 청지기 수련회는 코로나 비대면 상황으로 1월 찬양예배 시간을 리더십특강으로 대체합니다. 다시 출발하는 서울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혜로운 리더십을 배우는 기회에 모두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109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영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뿌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첫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

■ 출 15:22-27
 예수님은 사역의 첫 순간에 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던 그 때, 마귀가 찾아와 3가지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내게 한번만 절하라.’ 주님은 말씀으로 대응하시며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통하시며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첫 시험을 이기신 주님은 본격적인 전도사역을 담대하게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후 처음 맞이했던 광야의 시련입니다. 광야 어디에서도 물을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저기서 불평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광야에서의 첫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1. 끝없는 문제의 현상
 애굽에서 노예생활에 시달릴 때 백성들의 갈망은 속히 애굽의 잡계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세계를 원했고 채찍이 없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 물이 없는 광야의 현실에 직면하며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겨우 물을 찾았지만 마시지 못할 썩음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썩음을 가리켜 ‘마랴’, 고통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인생에 파라도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랴, 인생의 썩음 같은 일들이 삶의 자리에 가득합니다. 흔히 고난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말합니다.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노동과 해산의 고통, 자연으로 인한 고통, 사람들 사이의 갈등의 고통이 세상의 보편현상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에 대한 모든 원인을 모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였고 사도들도 ‘근신하라 깨어라’고 당부했습니다.

2.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
 고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크게 세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깊은 걱정의 수렁에 빠져드는 유형입니다. 이는 인생을 더 어렵게 합니다. 둘째,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는 유형입니다. 이는 삶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셋째, 분노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유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방법은 색달라 보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25절) 모세는 이 고통의 샘 앞에서 하나님께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격정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리의 썩음도 단물이 되도록 하셔서 이 광야 같은 곳들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3. 희망을 버리지 말라
 그들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광야의 전진을 계속했고, 하나님께서는 물 샘 열들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마리의 시련이 있는가 하면 엘림의 은혜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의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함과 이세벨의 집요한 박해에 지친 엘리야가 로렘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쉬게 하신 후 다시 일어나 호렘산으로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고향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랑하는 게 시가 임했습니다. 망국의 시각이 다가오고 백성들은 포로가 될 것이며 도시도 초토화될 텐데 밭을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짓이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밭을 샀습니다. 희망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지금 밭을 사는 것입니다.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인생의 어려움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힘든 일이 이어질 것이지만 썩음이 단물 되듯 광야의 모든 시련들을 하나님 은혜로 이길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마랴를 만날지라도 낙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말고 은혜주시 하나님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전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최광성 장로
I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오치열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시 47: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4(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94(새해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64(1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출 15:22-27...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첫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348(388)...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임성빈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39:16-17 인 도 자
 찬 송 68(32) 다 함 께
 기 도 김지수 집사
 찬 송 330(370) 다 함 께
 성 경 롬 12: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뉴노멀 시대의 도전과 과제” ... 설 교 자
 * 찬 송 332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전재홍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함정희 권사 II부: 송민정1 권사
 성 경 행 13:42-5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사람”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연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조동수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새가족부 임원 모임 / 9일(주) 1부 예배 후 609호
2. 리브가전도회 모임 / 9일(주) 3부 예배 후 502호
3. 정기당회 / 12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402호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교회학교 - 비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615명	560명	2,175명	475명	2,336명



새 출발의 논리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의 가치관과 목적을 갖고 시작을 할 때 새 출발이 가능해진다. 시간이 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고 오는 것이므로 질적 변화가 없이 시간의 변화로만 새 출발을 할 수는 없다.

새 출발을 하려면 과거에 붙잡혀 너무 슬퍼하거나 아니면 자랑만 해서는 안 된다. 나약한 노스탈자는 새 출발의 결단을 마비시키는 독소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과거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 기점은 과거나 현재의 조건보다는 미래 비전에 있기 때문에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해야 한다. 거기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전진도 출발도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입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급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 15:26)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1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